

'댕댕이와 함께 익산으로'

시, 10월 댕댕이 행사주간 반려동물 동반 프로그램 연속 출시

익산시가 10월에 댕댕이와 함께 떠나기 좋은 여행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익산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은 올해 처음으로 10월 익산 댕댕이 행사 주간을 지정하고 전국민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1500만 반려가족을 위한 반려견 동반프로그램을 연속 출시한다.

오는 7~8일 1박2일 열리는 반려동물 동반 프로그램 2023 익산 댕댕이 캠프와 7일 반려동물 소규모 운동회 2023 댕댕이를 비롯해 10월 한 달간 반려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상품 등을 쏟아낸다.

먼저 2023 익산 댕댕이 캠프는 서울에서 익산으로 떠나는 숙박형 프로그램으로 익산 내 반려동물놀이터가 있는 다송무지개매화마을에서 캠핑과 댕댕이파티라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제

공하여 많은 반려인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간에 댕댕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23 댕댕이"는 2023익산방문의 해를 맞이해 기존 익산댕이와 익산방문에 관심 있는 전국 댕댕이를 익산에 초대하여 익산 다송무지개매화마을(반려동물 놀이터)에서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도내 최초 반려동물 운동회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은 2022년 한국관광공사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 방안' 연구결과 연간 약 1조 306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인당 평균 지출비용은 28만원으로 일반 여행객 보다 3.6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려동물 동반 프로그램 수요 계층에 맞춰 해당 상품을 기획·출시하게 됐다"며 "반려동물 관련 상품 출시 및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반려가족이 1500만명 시대로 관련 산업 성장세와 동반해 반려동물 동반 여행 수요 및 관련 행사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등 하드웨어를 갖춘 반려동물 친화도시 익산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익산문화관광재단 관광자원개발팀(063-918-9988)에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는 4일 전북대학교와 익산시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물용 의약품 산업의 메카로"

익산시-전북대, 동물헬스케어클러스터조성 협약 체결

익산시는 4일 전북대학교와 익산시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과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역할분담을 통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동물용 의약품 산업 관련 지역발전 대응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으로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로드맵을 마련하고 세부 실행과제를 발굴·확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전문인력·시설·인프라 공동 활용 등 협력으로 단계별 맞춤형 전략 기획, 주요 정책 현안 정보공유로 관련

사업 유치 등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동물용 의약품 평가·시험, 시제품 생산 지원, Test bed 등 동물용 의약품 R&D 지원 및 산업화 기반 조성을 통한 동물용 의약품 관련 시설을 집적화할 계획이다.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으로 국내 축산업 발전 반려동물 시장 주도 및 미래 먹거리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전북대학교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지역 성장 동력 마련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동물용 의약품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익산이 관련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안심물가제 운영 위해 다자 협약 체결

수퍼마켓협동조합·소비자교육중앙회·여성소비자연합 등 원활한 안심물가제 운영 위한 맞손

군산시는 4일 전북군산수퍼마켓협동조합(이하 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군산지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군산지부(이하 소비자단체)와 함께 안심물가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심물가제란 소매가격상한제, 공동세일전 등의 세부사업을 통해 중소유통공동매물류센터(이하 센터)의 운영이 골목 소상공인의 가격경쟁력 확보 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 인하에도 영향을 주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받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안심물가제 시행에 앞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

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앞으로 원활한 안심물가제 실행을 위해 각 주체는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으로 안심물가제의 시행 주체인 조합은 세부사업 실행과 회원 홍보 및 교육,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지역 상권 이용 장려, 소매가격 모니터링 등 안심물가제 운영 지원에 협력할 예정이다.

또, 시는 조합과 함께 안심물가제를 공동기획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안심물가제는 골목상권의 회복과, 소비자 물가 안

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안심물가제가 정착되어 골목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군산시가 될 수 있도록 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시와 협의회 이달부터 센터의 공급가 대비 상한 마진율을 정해 그 이하로 판매하도록 하는 '소매가격상한제'를 시범 운영 중이다. 대상 품목은 15여개 품목이며 관내 수퍼마켓 10개소가 참여한다. 소매가격상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수급자 가구 '희망저축계좌1' 가입자 모집

군산시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위해 '희망저축계좌1'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1' 신청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로 3년간 매월 근로활동으로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국가에서 근로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 지원하며, 3년 후 탈수급을 할 경우 1,440만원(본인 적립금 10만원 저축시)을 받게 된다.

자산형성 지원금은 주거문제 해결, 본인·자녀 고등교육 기술훈련, 창업 운영자금, 그밖에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3년 만기 전에 중도 포기 또는 근로활동 중단시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다.

'희망저축계좌1' 5차 신청기간은 4일부터 오는 29일까지이며, 신청은 복지

로 www.bkjo.go.kr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복지로 상담센터(☎1566-0313) 군산시청 기초생활계(☎450-063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23년 차수별 희망저축계좌 신규 모집이 일정별로 진행되어 오니 많은 대상자가 신청하시어 탈수급을 위한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군산시, 전국 동시어업 허가 갱신 추진

군산시는 4일 전국 동시어업허가(연안 및 구획어업)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약 3개월간 전국 동시어업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연안 및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어업허가가 유효하다. 새로운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다. 시에 등록된 어선은 총

1,741척이 있으며, 올해 대상 허가 건수는 총 904건(연안어업 882건, 구획어업 22건)이다.

구비서류는 선박구획증서, 어선검사증서, 허가내역서다. 어선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해지계약서와 임차인 인간 증명서가 필요하며 허가취소를 받아 새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교육 이수증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전국 동시어업 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한 것으로 어업허가 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 있다. 연안어업 허가는 지난 2014년부터 5년 주기로 허가 기간을 정해 일제히 시행되고 있다. 또한 갱신 후 발급되는 전자 어업허가증 카드는 IC 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로 소유자와 선박, 허가사항, 면세유 공급 상황 및 어획물 위판관리 등의 정보가 저장돼 면세유 구입 및 어획물 위판관리에 편리해 도모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한 건의 어업허가도 빠짐없이 갱신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시민 고충 상담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군산시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2층 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각 분야별 전문조사관들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다양한 고충민원 해소 및 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현장중심의 민원상담 제도다.

이번에 운영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모든 행정분야, 사회복지,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지적, 노동관계, 서민금융, 의료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상담받을 수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2023년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익산시가 시민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2023년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10월 4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다.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의 주제는 △활력있는도시 △녹색정원도시 △문화관광도시 △교육복지도시 △시민안전도시 등 5개 분야로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한다.

공모 신청은 시정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해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참가자 중 30여명을 무작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며, 접수된 아이디어는 소관부서 검토와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창의성, 경제성, 계속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창안 등급 결정 후 우수 제안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결과는 최종심사를 거쳐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는 익산시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